

# 양계인의 구심점으로서의 협회가 되어야

이 수 연

<주>한일농원 홍보실

벌써 한 해의 십이분의 일이 지나갔다. 한 해의 오고감이나 어느 기간의 시작과 끝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미나 변화가 특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누구나 한 번 쬐은 또다른 해의 끝과 시작의 길목에서는 정신을 가다듬고 지난 일년의 반성과 다가오는 일년의 설계를 하게 된다

그 반성과 설계없이 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한 번 반성할 때마다, 한 번 설계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전진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위의 수없는 반복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되어 있고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 많이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제각기 보는 관점에 따라 시행의 순서가 정해지겠고 처리의 선후가 구별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공통분모를 찾아낸다는 의미에서 새해의 한 달이 지난 지금, 또 지난 과거에 솔하게 거론됐음직한 이야기 중 몇 가지를 한 번 더 거론해 보고자 한다.

현재 양계업계는 외관상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평온을 언제 어떻게 급작스러운 태풍의 와중에 휩쓸릴지 모르는 그런 평온이다.

그것은 양계업계도 경제개방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드세지고 있고 경제정책의 뒷전으로 밀려 완전 자유 경쟁이라는 별판에 버려져 있으며 개개의 양계농가가 극히 영세하다는 현실에

서 과거 몇년 간의 불황이 불러다준 평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체 양계인의 긍지를 모으는 제도적 장치의 시도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난국과 난관과 난제 앞에서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셋보다는 보다 많은 힘이 합해진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그 구심점을 양계협회로 잡고 그와 관련된 몇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양계협회의 권위를 회복하자

이 문제는 협회를 질타하는 것에 앞서 사업의 주체요, 양계인의 구심점으로서의 협회 역할을 촉구하는 것이다.

협회의 권위는 스스로 세워야 할 것인 바 행정 양식화된 업무의 테두리 안에서 피동적 활동을 하는 한 권위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무언가 하고 있으며 하려는 노력이 인상깊게 심어지는 가운데 양계인 스스로의 참여가 촉진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양계협회의 권위가 올라가리라 믿는다.

둘째, 사무요원을 엘리트화 하자.

업무를 활성화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소신것, 능력것 일하는 직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과 활동에 따라 상대급부를 보장하고 기본 처우를 개선하여 의욕을 북돋우어

주어야 협회에는 언제나 엘리트 사원들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일류 기업체 수준으로 대우를 개선시켜보자.

세째, 협회 산하 지부·지회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활동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현재 지역별 계우회나 지방 양계단체별로는 그 운영이나 활동에 있어서 아주 바람직스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중앙의 협회나 지역 단체간의 유기적 체계는 그리 긴밀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협회의 모세혈관적 기능과 팔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이들 하부 구성조직들의 참여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연결시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 예로써 어떤 이익과 직결된 공동테마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회원확충 배가 운동 전개 및 소속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현재 양계협회 구성 회원이 약 9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통계상 나타나 있는 5,000수 이상의 전업 양계농가의 수가 전국에 3천여 호로 집계되고 있는 바 회원의 수가 그중 30%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직 70%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70% 나머지 양계인들의 회비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전개하거나 공동목표를 위한 단결이 필요할 때 참여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양계전문지가 거뜬히 있는지, 어떻게 구독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며 개인회사 社報조차도 구독하려는 열의가 대단함을 느낄 때 협회에 대한 자체 홍보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폭넓게 회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책차원의 강화 및 홍보활동의 다양화를 도모하자.

어느 사업이건 자금이 결여되는 것은 없겠지만 이 분야는 막대한 자금, 그리고 고도로 숙련



된 기술이나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슬기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축산업의 구성 비중으로 볼 때 축우 및 낙농, 양돈업은 양계업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왕왕 국회차원에서까지 거론되고 있음을 볼 때 양계업은 확실히 뒷전에 밀려있음을 알 수 있다.

對 행정부, 對 국회 및 對 여론(언론) 로비를 강화하는 한편 닭고기 요리강습회와 같은 국소적 홍보외에 보다 폭넓은 범사회적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전문요원의 양성과 풍족한 자금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선술집에서 소주를 따르기 전에 맨 윗부분의 술을 버리는 것과 같은 식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우연한 기회에 발생하는 만큼 의견을 모으면 소비촉진의 방법이 아니 나온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소비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도 전개해볼 법하다.

여섯째, 기금조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그간 자조금제도 등 좋은 안이 수차례 제기된 바 별도의 언급이 불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앞의 모든 문제, 그리고 양계업계가 해결해야 할 전반적인 과제가 자금과 직결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또 그 시행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떠날 때까지의 과정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 일단 첫발을 내딛으면 어떤 형태로든 가기 마련인 것이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뿌리가 약한 나무는 크고 실하게 자랄 수 없는 법이다.

업계의 발전이 과일이요, 줄기와 가지가 협회와 양계조직이라면 양계인은 뿌리에 해당된다.

뿌리와 줄기가 함께 튼튼해지기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 판단을 바로하며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협회의 제한된 인원에게만 업계의 모든 현안을 떠맡겨 버리듯 방치(?)한 채 局外者로 남아 시

시비비를 논할 수는 없으며 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문제에 맞게 대처하는 일이나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일 수밖에 없다.

효율과 능률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병인년은 그러한 의미에서 보다 큰 발전과 전진의 기틀을 다지는 해로 삼아 기필코 양계인들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 해의 두 번째 달을 맞아 본격적으로 계획된 사항을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년에는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서 제기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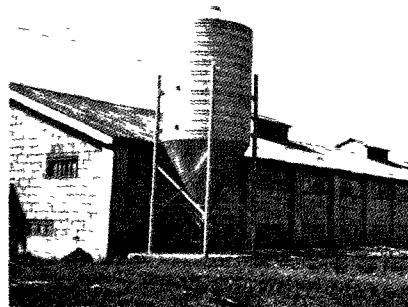
## BIN의 대명사 평농축기!

### STEEL BIN, FRP BIN

- 과학적 합리적설계로 언제나 신선하게 사료를 보관할 수 있고 외양이 미려하여 보기 좋으며 우수한 품질의 안정된 재료는 오랜 수명을 유지합니다.
- 다양한 규격생산공급
- 의장등록 제 32612 호

#### ☆ 생산품목 ☆

- 스크레파 및 스크류 콘베이어
- 부화기(조류, 오리, 닭)
- 인공화분



☆ 품질을 선택할 줄 아는 안목은 귀하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드릴 것을 확신합니다.

AUTOMATIC FEEDING SYSTEMS & INCUBATOR

# 平農畜機

〒180-86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가곡리 536-1

전화 (0333) 4-7484

야간 (서울) 803-6724